***PRESS INFORMATION***

|  |  |
| --- | --- |
| **보도 일시** | **2024. 11. 29. 배포 시부터 보도** |
| **사진 설명** | **29일 경기도 용인시 인텍FA(협력사)에서 열린 ‘LS UltraGrid 첫 출하식’에서 홍영호 LS머트리얼즈 대표이사(왼쪽 네 번째부터), 이희영 최고운영책임자(COO) 등 임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 **문의** | **김광국 과장 (02-2189-9597, 010-4306-5788 ,** [**kimgg@lscns.com**](mailto:kimgg@lscns.com)**) / 뉴스룸(**[**http://news.lscns.com**](http://news.lscns.com)**)** |
| **LS머트리얼즈, 신제품 ‘LS UltraGrid’ 첫 출하…전력 안정화 선도**  **■ 국내 첫 MW급 UC 시스템 상용화, 0.1초 내 MW급 전력 공급**  **■ 신재생에너지, AIDC 시장 선도할 차세대 전력 안정화 솔루션**  **■ 고부가가치 시장 선점, 글로벌 시장 도약 신호탄**  LS머트리얼즈(대표 홍영호)는 전력 안정화를 위한 신제품 ‘LS UltraGrid(울트라그리드)’의 첫 출하식을 29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LS UltraGrid는 메가와트(MW)급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랙(Rack)형 울트라커패시터(UC) 시스템이다. 풍력 및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전력 안정화를 위해 국내외에 공급될 예정이다.  최근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와 함께 출력 변동성으로 인한 전력 불안정 문제가 커지고 있다. LS UltraGrid는 0.1초 이내에 MW급 전력을 공급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독일 등 유럽을 중심으로 랙형 UC 시스템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은 2026년 1,000억 원, 2030년 5,000억 원 이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홍영호 LS머트리얼즈 대표는 “LS UltraGrid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물론, AI데이터센터(AIDC),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하다”며, “앞으로 시장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LS UltraGrid는 LS머트리얼즈가 중대형 UC 기술을 기반으로 국내 최초로 개발한 제품으로, 전 세계에서도 극소수 기업만 상용화에 성공했다. 회사는 이번 출하를 통해 고부가가치 시장 선점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 |